

1/7/18

설교 제목: 너희 하나님을 보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이사야 40:1-11

- (사 40: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 (사 40:2)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절관주** 사 35:4
- (사 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 (사 40: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 (사 40: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절관주** 요 1:14
- (사 40: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절관주** 렘 2:2, 애 2:19
- (사 40: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희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붉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절관주** 사 40:24
- (사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 (사 40: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절관주** 사 25:9
- (사 40: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절관주** 계 22:12
- (사 40: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를 축소해 놓은 작은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이 66 권이듯이 이사야서도 66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경이 구약 39 권과 신약 27 권으로 나뉜 것처럼 이사야서도 전반부 39 장과 후반부 27 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말하고 신약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전반부는 이스라엘과 주위 열방 그리고 온 땅의 죄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후반부는 메시아로 말미암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39 장과 40 장은 내용이나 문학적 스타일 시대적 배경 등등이 완전히 다른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하나로 이어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전반부 마지막 장인 39 장이 히스기야 왕의 실수로 인해 남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예언으로 끝을 맺는데 이어 후반부 첫 장인 40 장은 남 유다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남 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이미 멸망한 후 70 년이 지나 회복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 유다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앗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남 유다를 구해내고 예루살렘을 지켜낸 후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시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의 므로닥발라단 왕이 앗수르와의 전쟁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로 이끈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남 유다를 방문합니다.

승리에 한껏 도취된 히스기야 왕은 신이 나서 바벨론 므로닥발라단 왕에게 남 유다의 군사적 기밀들을 모조리 다 보여주며 자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당시 신흥 국가였던 바벨론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의 생각과는 달리 바벨론은 훗날 앗수르를 멸망시키고 최강대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런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으며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예언대로 남 유다는 그로부터 약 150 년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기 위해 주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언을 받는 이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경고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남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로부터 계속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70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간지 70 년이 지난 후에서야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사 40:1)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이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 땅에 남아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라고 하십니다.

(사 40:2 전)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리고는 그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사 40:2 후)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유다 백성이 그들이 지은 죄값을 다 치렀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의 회복을 알리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고 명하십니다.

(사 40:3)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사 40:4)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사 40: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는 사막으로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조국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 반드시 이 험난한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험난한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광야로 오셔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데려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느라 지칠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험난한 광야를 걸어야 하는 유다 민족을 직접 찾아 오셔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갈 때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그 광야는 길도 없고 물도 없는 험난한 곳입니다.

그렇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친히 그 광야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나가기 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가야할 광야에 길을 닦아 평탄케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중 가실 것이니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서 성취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세례를 주며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던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회개를 촉구함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믿음의 길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갚으시고 그들을 품에 품고 친히 광야를 건너서 당신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사야 40 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곡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장엄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사 40: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사 40: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도 마치 들의 꽃과 같이 들의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영원하여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무지 망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성했던 이집트도 앗수르도 바벨론도 시간이 차매 다 멸망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제 아무리 세도가 당당한 사람도 때가 이르면 쇠하여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 속에서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를 찾아 친히 구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험난한 광야를 함께 걸으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환란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힘써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 40: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70 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 이제 소망마저 가물가물해진 당신의 사랑하는 유다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 121: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 121: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 121: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5) 여호와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시 121: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121: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 121: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당신이 장차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당신이 강한 자로 오셔서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상급을 가지고 오셔서 큰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사 40: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사 40:11)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비록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값으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기는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지라 죄값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 나가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거친 광야를 걸어 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 오셔서 우리와 함께 광야를 걸어가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시 23: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 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 23: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